



KSLA

Bulletin

자랑스러운 KSLA人

박신석 | (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KSLA 평생회원

자랑스러운 KSLA人

“ 끊임없는 자신의 성찰과 변화를 통한
전문도서관계의 선구자적인 사서 ”



박신석 실장

글 _ 채균식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의 세상을 보면 문득 더 이상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체 중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기체 중 하나일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성찰과 변화를 통한 전문도서관계의 선구자이신 박신석 실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한다.

박신석 실장님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약 21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정년을 마치셨다. 현재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를 창설하셨고, 그 이후 개명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주요활동으로 주변 출연(연) 기술정보실에서 보유한 다양한 정보원을 공유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 정보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소속 기관의 목록데이터에 대한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 사업을 주도하여 연구원이 과학 도서를 비롯한 학술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신석 실장님은 연구원 내부에서도 활발한 정보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사용해오던 측정표준 관련 사료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길이, 무게, 천체, 시간 등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측정에 대한 역사 자료를 수집 발굴한 공로로 많은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 1990년도 초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정보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정보를

자랑스러운 KSLA人

전산화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당시 구축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상용화해서 전문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개발의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응용되고 있다. 1999년경에는 당시 초창기 웹기반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을 이용하여 KRISS 전자도서관을 개발하였고 당시 개발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전문도서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박신석 실장님을 내가 처음 뵈던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입소한 1989년이었다. 당시 그 분에 대한 느낌은, 형님 같은 분이셨지만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엄격하시어 실수라도 했을 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혹독하게 조련해 주셨다. 당시에 그런 가르침 덕분에 지금도 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곤 한다.

박신석 실장님은 연구소에 계시면서 본인 스스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하신분이다. 보직자로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였지만 실장님이 평직원으로 생활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중후반이 되면 그러하듯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셨다. 당시 기억으로는 실장님 역시 건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혹독하게 체력강화에 주력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로 마라톤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셨는데 그 결과 성격도 밝아지시고 체력도 그 당시 5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며, 그와 더불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셨다. 그 분의 이러한 생활태도를 보면서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고 실행하는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우리들에게 한번쯤 생활의 활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의 근황은 꾸준히 체력관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

사실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아무 일거리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심신에 많은 변화가 오게 마련이다. 그분은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고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다.

마라톤 개인 블로그(blog.dreamwiz.com/sundial, blog.naver.com/sungnomon)를 만들어 관련동호회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충남태안에 클라인 가르텐(Klein Garden : 작은 정원 ; 주말 주거형 농장) 사업을 위해 4,000여 평을 조성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70세가 되는 2014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마라톤대회나 트라이애슬런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시어, 참으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다.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도서관인들은 친화적인 성격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전문도서관을 보면서 지난시절의 그리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하나씩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할 시기이다.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들이 박신석 실장님을 비롯한 당시의 여러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듯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뒤의 우리들도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도서관인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 박신석 실장님은 KSLA의 평생회원이십니다.